

최남선의 신대한(新大韓) 기획과 ‘로빈슨 크루소’*

김남이**·하상복***

1. 서론
2. 최남선의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 번역과 의미
 - 1) 『소년』의 서양 텍스트 번역
 - 2) 『로빈슨 크루소』에서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로
 - 3)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최남선, 1908)의 번역 대본
3. 조선의 소년기상과 ‘로빈슨 크루소’
 - 1) 신대한 소년과 ‘로빈슨 크루소’: ‘해(海)에게서 소년에게’
 - 2) 신대한 소년과 ‘大洋’: 소년성장과 조선미래의 資源
4. 맺는말

六堂 崔南善(1890; 고종 27~1957)은 1900년대 초반부터 조선 신문명론의 선두에서 ‘新大韓’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그는 조선광문회와 신문관 등의 출판 활동을 통해 동서양의 고전/텍스트를 수집, 소개, 번역하면서 조선문명화라는 절실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조선문명화의 꿈을 이루어갈 신대한의 미래로서 ‘소년’을 발견하고, 『少年』(1908~1911), 『青春』(1914~1915) 등의 잡지를 통해, 조선의 소년에게 필요한 문명의 지적 체계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때 동서양의 고전/텍스트들은 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성장, 문명화하는 機關이자 자양분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이 글은 그렇듯 최남선이 민족-국가의 상실 위기 속에서 ‘소년’을 통해 문명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려 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문명의 외양을 하고 나타난 ‘서양’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당대 조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유용한 가치로 소화해낼 것인가 하는 최남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9).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HK 조교수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 조교수

선의 질문과 실천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선문명화의 운명을 걸머진 '소년'의 像과 관련해서 이 글은 최남선이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우(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를 번역하여 『소년』에 연재한 『로빈슨 無人絶島漂流記』(1909)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남선이 '활동, 진취, 발명의 대국민을 양성하'고자 『소년』을 창간하던 그 시초에 '로빈슨 크루소'는 '소년'과 동시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20세기 초 최남선의 신대한 기획에서 매우 중요한 기표가 된다.

최남선은 소년이 조선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 생각하고, 소년이 '문명화된 개체'로서의 안팎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당대 조선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남선이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 주었던 '소년'과 '바다'는 최남선이 당대에 수행한 '서양'에 대한 경험과 구체적 번역, 곧 '로빈슨 크루소'라는 서양의 근대/개인/자본의 기표를 가져 와 이를 조선의 맥락으로 삽입, 변화키시면서 신대한 소년의 안과 밖을 구성하는 핵심적 상징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때의 '로빈슨 크루소'는 디포우 원작에서 문제시되었던 제국과 식민의 논리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조선이 문명화된 국가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달성하기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작동하였다.

주제어 : 최남선, 소년, 로빈슨 크루소, 신대한, 조선 문명화

1. 서론

六堂 崔南善(1890: 고종 27~1957)은 1900년대 초반부터 조선 광문회와 신문관 등의 출판 활동을 통해 동서양의 고전/텍스트를 수집, 소개, 번역하기 시작했다.¹⁾ 이는 조선문명화라는 절실한 명제를

1) 최남선은 조선광문회와 신문관 활동을 통해 조선의 고전문헌과 서양의 텍스트들을 번역, 출판하였다. 조선의 고전문헌들은 문학, 역사, 어학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시조와 같은 국문문학은 물론이고 한자로 표기된 다양한 텍스트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인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읽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기숙, 「“옛 것”의 근대적 소환과 “옛 글”의 근대적 재배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²⁾ 이런 시기, 그는 조선문명화의 꿈을 이루어갈 신대한의 미래로 '소년'을 발견하고,³⁾ 『少年』(1908~1911), 『青春』(1914~1915) 등의 잡지를 통해, 조선의 소년에게 필요한 문명의 지적 체계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최남선의 말을 빌리자면 잡지 『소년』은 “活動的·進取的·發明的 大國民이 될 소년을 양성하기 위해”⁴⁾ 출간된 것이었다. 그가 당대 조선의 '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지표화한 것은 활동성과 진취성, 그리고 창조와 발명의 힘이 있음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렇듯 최남선이 민족·국가의 상실 위기 속에서 '소년'을 통해 문명 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려 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문명의 외양을 하고 나타난 '서양'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당대 조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유용한 가치로 소화해낼 것인가 하는 최남선의 질문과 실천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특히 1910년대까지 최남선의 활동은 조선 전통의 고전 텍스트와, 그가 입수했던 새로운 동서양의 텍스트들을 번역, 출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점에서 동서양의 고전/텍스트들은 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성장, 문명화하는 機關이자 자양분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가 19세기말 20세기초 조선의 고전과 서양의 텍스트를 수집, 번역, 출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조선신문명의 길로 내달리기 위해서였다.

최남선이 번역, 출판한 서양의 텍스트들은 다양하다. 이들의 번

치: 『소년』과 『청춘』을 중심으로(『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 연구소, 2007)는 조선의 고전들이 『소년』과 『청춘』이라는 잡지를 통해 어떻게 근대적 독서물로 소환, 배치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매우 흥미롭고 정밀하게 밝혀 놓았다.

- 2) 1910년대 번역의 문제에서 최남선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 3) 근대 시기 조선의 '소년', '청년'에 대한 관심이 갖는 의미는 최재묵(2006), 「최남선 『少年』誌의 '新大韓의 소년' 기획에 대하여」(『일본문화연구』 18, 2006)에서 밝혀져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 4) 『소년』(1-1) 표지.

역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를 모두 거론하지는 않는다.⁵⁾ 다만 조선문명화의 운명을 걸머진 ‘소년’의 像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소년』에 연재된 『로빈슨 無人絶島漂流記』(1909)이다. 이 작품은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우(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를 원작으로 한 축약, 발췌 번역본이다.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먼저 의미있게 살펴야 할 점이 있다. 곧 최남선이 “활동, 진취, 발명의 대국민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창간한 잡지 『소년』에 ‘로빈슨 크루소’는 ‘바다’, ‘소년’과 동시에 지면에/조선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최남선은 『소년』 창간호에서 잡지를 창간하는 취지를 “우리 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는 말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소년’과 같은 나라, 대한을 향한 그의 꿈은 이어지는 지면의 내용을 통해서 그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다’와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소년』 창간호의 본격적 지면의 첫 페이지는,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인 <海에게서 少年에게>이다. 이어 중간 부분부터는 『海上大韓史』의 첫 연재가 나온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海上大韓史』는 조선 “소년의 海事思想을 높[鼓發하]”여 “조선의 국민성이 되어 버린 조상 대대로부터의 육상의 유전성”을 끊고 ‘해상 모험심’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이런 『해상대한사』에 이은 지면은 <바다란 것은 이러한 것이오>이다. 여기에서는 바다에 대한 지배가 곧 세계에 대한 지배라는 격언, 그리고 海事에 관한 작품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등장하고 있다. ‘바다’와 ‘소년’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고 『소년』 잡지를 다시 보았을 때, 그 지면은 이처럼 일면 매우 절묘한 연결 고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5) 최남선이 최초로 번역, 소개한 톨스토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권보드래의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이 있고, 『걸리버유평기』와 관련해서는 권두연의 「근대 초기 번역 소설에 관한 연구」, 신문관 단행 번역 소설에 대해서는 권두연의 「신문관 단행 번역 소설 연구」 등이 있다. 『레미제라블』과 관련해서는 『소년』과 『청춘』에 각각 다른 제목으로 게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진영의 「소설 번역의 다중성과 역사성—『레미제라블』을 위한 다섯 개의 열쇠」가 있다.

이처럼 최남선이 『로빈슨 크루소』를 번역, 소개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20세기 초반, 조선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외부 세계와 그에 대한 경험의 방식은 점차 다양해졌을 것이다. 서양과 관련된 개별 지식의 수입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와 각종 제도와 기관에 관한 정보들이 근대적 지식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여행과 유학을 통한 경험 속에서 조선에서든 해외에서든 서양/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했다. 그렇게 조선인들은 조선 너머/밖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가는 다양한 통로를 스스로 모색하거나 혹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나게 된 텍스트의 하나가 『로빈슨 크루소』였다.

이런 시기 조선 사람들에게 섬나라 영국 태생으로 모험심 왕성했던 소년이 무인도에 표류하고, 세계를 떠돌며 모험하고 돈을 벌며 일생을 보낸 이야기는 어떤 점에서 흥미롭게 또는 의미있게 다가갔을까? 물론 이러한 질문은 『로빈슨 크루소』뿐만 아니라 최남선이 번역했던 많은 다른 서양 텍스트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 이 글이 『로빈슨 크루소』에 집중하는 것은 최남선이 꿈꾸었던 理想이 ‘바다’와 ‘소년’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인 텍스트 『로빈슨 크루소』의 등장과 연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향성은 특히 20세기 초기까지 최남선의 활동 영역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을 상기하며,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서 형상화된 ‘로빈슨 크루소’ 혹은 ‘그의 遊歷’이 최남선의 ‘문명’과 ‘소년’이라는 조선의 컨텍스트에 삽입되었는가, 어떻게 ‘번역’되었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최남선이 『소년』에 실은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는 완역이 아닌 발췌 축약 번역이며, 일본어 번역판을 중역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 번역판과의 비교까지 이루어져야 이 논의가 더 면밀해질 것이다.⁶⁾ 그러나 최남선이 『소년』에 게재한 서양 번

6) 『로빈슨 크루소』의 일본어 번역본과의 비교 분석 고찰 문제는 이 논고를 준비하고

역물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축약 번역본은 최남선이 꿈꾸었던 조선 문명화와 근대 기획의 축소판임이 분명하다. 원 소설과 번역본의 비교 검토는 조선이 서양을 만나는 접점과 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이로부터 최남선이 근대 조선의 가장 열악한 상황, 바로 제국의 식민지라는 억압적 공간을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방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최남선의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 번역과 의미

1) 『소년』의 서양 텍스트 번역과 의미

최남선은 잡지 『소년』과 『청춘』 등을 통해 서양의 인물전기, 모험담, 소설, 시 등을 계속적으로 번역, 수록하였다. 특히 여행기, 표류기, 탐사기 등의 번역이 두드러지는데 북극탐사와 관련된 글에서 “이 글을 譯述하는 이유는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가는 것을 만리원정이나 되는 듯이 여기는 옷바싹름군들에게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라며 ‘지구라도 부수고 밟길질 할 기상’을 갖고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⁷⁾ ‘역술’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번역과 함께 역자의 일정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번역이었고, 번역자가 명확하게

여러 분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기된 사항이다. 그것이 꼭 필요한 연구 과정임을 필자들이 또한 공감하였다. 최남선은 『로빈슨 크루소』 번역 대본으로 일본인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텍스트를 선택했는데 텍스트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은 물론이고, 최남선이 ‘소년’에 관심을 갖게 된 인식론적 계기로서 이와야 사나자미라는 인물, 그리고 그 번역본에 대한 고찰은 필자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본근대문학이라는 또다른 영역과의 연계가 필요한 탓에 별도의 논고를 통해 일본어 중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필요성과 중요성만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멈추었다.

- 7) <北極探索事蹟-육삭일망탐빙표류담>(『소년』 2-1). 지명에는 두 줄, 인명에는 ‘』 표시를 하였으며 한자를 노출 병용한 국문체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번역의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소년』에 수록된 『The ABC契』(『The Friends of the ABC』(『소년』 3-7)이다. 『The ABC契』는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摘譯한 것인데, 梗概譯처럼 축약 번역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번역한 것이다. 대본은 일본어 번역본이었으니 重譯이다.

최남선의 시대에 쓰인 번역 방식은 지금의 ‘완역’ 개념과는 다른 ‘摘譯’, ‘抄譯’, ‘節譯’이었다. 이는 최남선뿐만 아니라 아시아 근대 시기 번역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⁸⁾ 번역의 대본은 서양 텍스트라 해도 대개는 일본어, 혹은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것들을 국한문 혹은 순국문으로 다시 번역하는, 이른바 重譯의 이었다. 또 앞에서도 잠시 나온 표현이지만 ‘譯述’처럼 원전 번역에 번역자의 기술이 혼합된 방식도 있었다.⁹⁾ 이러한 근대 번역의 방식은 원전 자체가 담고 있는 텍스트성과 가치보다 번역자가 처해 있던 현실의 당대적 가치와 구호를 전달하는 데 더 무게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남선 자신도 토로하고 있듯이 그에게 ‘번역’은 원 텍스트 字字句句의 온전한 번역과 그에서 오는 문예적 즐거움과 묘미를 즐기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¹⁰⁾

최남선은 『The ABC契』를 연재하면서 “(일본어 번역대본이 원본을)剪裁摘譯한 것을 다시 번역한 重譯”임을 밝히고 있다. 최남선이 이 책을 선택한 것은 문예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교훈서’라는 가치때문이다. 그의 말을 다시 빌어 보면 “혁신시대 청년의 삶과 그 발표되는 事象을 그려서 그때 역사를 짐작하기에 편하고, 또 우리들로 보고 알 만한 일이 많이 있음”¹¹⁾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8) 이런 현상은 근대 시기 ‘서양을 번역했던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豪傑譯’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9) 『소년』의 한 코너 <북극탐색사적·육식일망탐빙표류담>(『소년』 2-1)이 대표적이다.

10) 모든 번역에서 최남선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말은 아니다. 『소년』에서 『청춘』으로 갈수록 이른바 ‘문예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점도 있고, 또 같은 시기라 해도 특정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남선의 운동 노선, 혹은 방향과 관련하여 이 번역본은 중요한 외침을 담고 있다. 『The ABC契』의 번역 저본은 하라 호이츠안(原抱一庵, 1866~1904)이 번역한 『ABC組合』이다. 하라 호이츠안의 번역본은 “메이지 정치소설의 점진주의 사상을 그대로 직역한 것”¹²⁾으로 평가받는다. 최남선은 실제로 이 소설을 통해 “비스듬히 기울어진 진보”라는 자신의 노선을 언표했고, 이를 ‘漸進은 神의 全政略’(Slow progress is the Whole policy of God)이라는 명제로 확인했다. 『The ABC契』 번역문에서 “점진주의”의 내용과 입장이 무엇인지, 얼마쯤은 짐작해 볼 수 있다. 과격하게 포호했던 혁명 봉기자들이 바랐던 것은 武力의 소실이며, 자유와 연민, 평등과 우애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극락의 세계’를 얻기 위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소리를 지른 야만, 문명(Civilization)의 야만(Savage)”이었다. 최남선은 “그와 같은 급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후퇴치만 아니하면 점진(漸進)은 좋다”, “우리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진보”가 좋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라 호이츠안의 일본어 번역본이 담고 있는 “점진주의”의 성향은 일정한 정도로 최남선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특별 기획번역 『The ABC契』를 통해 『소년』의 독자들에게 표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언설들은 20세기 초반 최남선의 활동이 갖는 방향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05년 일본의 통감부 설치 이래, 조선은 실질적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 상태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최남선이 소년/책/교육에 집중하며 번역/출판 활동을 통해 근대 지식들을 유포하고, ‘소년’의 수신과 교양을 강조하며, 서양의 위대한 인물과 텍스트를 번역, 소개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을 다시 떠올려

11) 『소년』 3-7, 서언.

12) 곧 “원작 『레미제라블』 중에서 비밀결사 ‘ABC의 빛’과 관련된 부분만을 가려 뽑아 재구성한 것으로, 『ABC組合』은 『레미제라블』에서 출발했지만 그와 무관하게 프랑스 혁명 역사 ‘교과서’로 성립된 것”이었다. 『레미제라블』 번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박진영(2007), 「소설 번안의 다중성과 역사성: 『레미제라블』을 위한 다섯 개의 열쇠」, 『민족문화사연구』 33, 민족문화사학회, 222~223쪽을 참조한 것임을 밝혀 둔다.

볼 일이다. 『소년』을 창간하던 1908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며 무력항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었다. 동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병항쟁을 보는 시각차가 상당했음은 알려진 일이지니¹³⁾와 『The ABC契』의 번역을 통해서 최남선의 입장을 확인해 본다면, 그는 손에 몽둥이를 든 무력항쟁도, 큰 소리로 외치는 정치투쟁도 자신의 길은 아니라 여겼던 것이다. 최남선은 운동가였으되 새로운 문명으로 탄생하는 조선을 위한 문화운동을 벌이는 운동가였다. 그런 점에서 몽둥이와 고함이 아니라, 책, 그리고 교육으로 다듬어진 문명화된 인간은 漸進이라는 방식으로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그에게 매우 적합한 무기이자 목표였을 것이다.

2) 『로빈슨 크루소』(1719)에서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1909)로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는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발간한 잡지 『소년』(1908~1911) 1년 2호(1909. 2. 1)에서 2년 8호(1909. 9. 1)까지 약 7개월간 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첫 번째 연재인 1년 2호에 작품 소개 겸 연재 사실이 공지되었고, 본격적인 작품 연재는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2단 편집을 기본으로 하여 序言격의 연재 (1)회 1면, (2)회 7면, (3)회 5면, (4)회 3면, (5)회 3면, (6)회 19면, (7)회 14면으로 총 52면이다. 서언 (1)회를 제외하면 (2), (3), (4)회는 총 16면으로 무인도 표류 전의 이야기이고, (5), (6), (7)은 총 36면으로 무인도 표류 이후의 이야기인데 전체 연재 분량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디포우의 원 소설 『로빈슨 크루소』 1부는 1719년 4월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에 의해 출판된 이후 18세기 영국소설로는 가장 많은 판본, 해적판, 그리고 번역판을 만들어 냈다. 물론 이 출판

13) 예컨대 『대한자강회월보』의 일부 논설에서는 의병들의 무력항쟁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하는 태도가 보인다.

전에 1부가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출판되기도 했다. 출판 당해에 1부가 4회나 재판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¹⁴⁾ 이어서 당해 8월에 2부, 이듬해 1720년 8월에 3부가 출판되었다.¹⁵⁾ 2, 3부는 1부에 비해 대중적 인기가 없었고, 원 소설에 대한 평가도 1부에 집중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출판된 『로빈슨 크루소』 1부의 영어판을 살펴보면 대개 250쪽 내외,¹⁶⁾ 그리고 한글 번역본의 경우 1부는 펭귄 클래식 판 『로빈슨 크루소』는 384쪽, 원 소설 판본 사황은 없지만 김병익·최인자의 1부·2부 전체 한글 번역판은 1부 342쪽, 2부 290쪽이다. 이는 최남선이 『소년』에 게재한 축약 번역본의 쪽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원전과 대비할 때 엄청난 축약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번역할 내용’과 ‘가치’에 대한 선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소년』에 연재된 번역본 자체만 두고 본다면 총 6회의 연재 분량 중 무인도 표류 이후의 삶에 큰 비중이 있다. 지금까지 『로빈슨

14) Michael Shinagel, *Robinson Crusoe: Daniel Defoe*, 238.

15) 1부의 원 제목은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로 오루노크(오리노코) 강 어귀의 아메리카 해안 무인도에 떠밀려가 혼자 28년을 살다가 마침내 놀랍게도 해적들에 의해 구출되기까지의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일대기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담—주인공의 생생한 수기」(*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 of Robinson Crusoe, of York, Mariner: Who lived Eight and Twenty Years all alone in an uninhabited Island on the Coast of America, near the mouth of the Great River of Oroonoke(Orinoco); Having been cast on Shore by Shipwreck, wherein all the Men perished but himself, With An Account how he was at last as strangely deliver'd by Pirates. Written by himself*)이며, 2부의 원 제목은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담 후편-그의 일대기의 2편이자 완결편』(*The Farther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Being the Second and Last Part of his Life*)이다. 1720년 8월에 출판된 3부의 원 제목은 「로빈슨 크루소의 일대기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담 중의 경건한 사색과 그가 본 천국의 모습」(*Serious Reflections during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With his Vision of the the Angelick World*)이다.

16) 몇몇 출판본의 『로빈슨 크루소』 1부에 대한 분량은 다음과 같다. 펭귄 클래식(Penguin Classics) 영어판(2003년)은 소설 본문만 230쪽이고, 옥스퍼드 세계 고전(Oxford World Classics) 판(2007년)은 259쪽이다. 본 글에서 원 소설 내용 인용에 사용하는 마이클 쉬네겔(Michael Shinagel) 편집의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 본문만 232쪽이다. 2부의 경우, 그 분량은 세레니티(Serenity) 출판사가 2009년 출판된 판을 참조하면 200쪽 정도 된다.

크루소』가 무인도 표류담으로서만 기억되는 것도 이런 원류가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디포우의 원작에서 무인도 표류 이전 부분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짚어 보면 이 사실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즉 디포우 원작에서 무인도 표류 이전은 1부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¹⁷⁾ 이에 비하면 최남선 번역본은 모험을 떠나기까지 과정에 상대적인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번역과 연재를 시작하며 초반부 번역에 좀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 수도 있지만 좀더 날카롭게 살펴 보아야 하는 최남선의 의도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였다.

3)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의 번역 대본과 의미

근대 시기 『로빈슨 크루소』를 비롯한 서양 텍스트 번역의 대본은 대부분 일본어 번역본이었고, 자연 서양어 → 일어 → 한국어로 진행되는 重譯이 많았다. 그 중 메이지 20년대까지의 『로빈슨 크루소』 번역서 출간 상황을 보면 대략 10여 종 내외가 확인된다.¹⁸⁾ 아래 주석에 정리한 것 중에 4종(1, 2, 3, 5)은 네덜란드어 등의 중역이며,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한 의도가 보이는 것은 3종(4, 6, 8)이다. 1883년(명치 16), 일본 博聞堂에서 간행된 이노우에 쓰토무(井上勤)의 번역본 『絶世奇談魯敏孫漂流記』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장 양질의 번역본으로 인정받았다.¹⁹⁾ 최남선 번역보다 조금 앞

17) 판본에 따라 다르나, 무인도 표류 이전에 대한 내용은 원 소설 1부에서 대략 35페이지 정도이며, 원 소설 1부 전체 분량 대비 대략 3/20 부분 차지한다.

18) 이 부분은 부산대 일문과 허지에 선생이 우사미 타케시의 『로빈슨 크루소의 명치기 번역을 둘러싸고—표현구조가 만들어낸 세계』(『국어와 국문학』 1989년 3월호, 동경대학 국어국문학회)에서 조사해 준 내용을 토대로 했다. 1. 쿠로다 유키모토(黒田行元) 『표항기사』 2. 요코야마 호조(横山保三) 『로빈슨 표항기략』 3. 사이토 료간(斎藤了庵) 『영국 로빈슨 전전』 4. 야마타 마사타카(山田政隆) 『회세미담』 5. 橘園迂史 『로빈슨 섬 이야기』 6. 이노우에 쓰토무(井上勤) 『로빈슨 표류기』 7. 우사야마 카쿠도(牛山鶴堂) 『신역 로빈슨 표류기』 8. 타카하시 히데미네(高橋秀峰) 『로빈슨 크루소-절도 표류기』

19) 김병철(1976),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을유문화사, 269쪽. 김병철 또한 이노우

서는 1908년, 金欒 譯述로 간행된 『絶世奇談 羅賓孫漂流記』(義進社, 국판 178쪽)도 이노우에 번역 『絶世奇談魯敏孫漂流記』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²⁰⁾

이제 최남선의 번역 대본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최남선은 이른바 ‘名譯’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노우에 번역본 대신 일본 근대 동화작가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1870~1933)²¹⁾가 엮은 『無人島大王ロビンソン漂流記』(1899)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²²⁾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최남선이 『로빈슨 크루소』를 번역하여 『소년』에 연재하던 시기에 조선에는 디포우 원작 『로빈슨 크루소』를 410쪽 분량으로 충실하게 번역한 이노우에 본이 들어와 있었다. 이를 번역 대본으로 한 김찬 역술본 『絶世奇談 羅賓孫漂流記』(義進社, 국판 178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아울러 의진사가 京城에 터잡은 출판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남선이 이 번역본들을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최남선은 그 대신 이와야 사자나미의 번역서를 대본으로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번역 대본 선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의미는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행적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일본 博聞館이 발행한 소년²³⁾ 잡지 『少年世界』, 『少女世界』, 『幼年世界』, 『幼年畫報』와 같은 잡지의 主筆

에 번역본이 ‘名譯’이라는 일본 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비교적 충실한 일역’이라고 평가했다.

20) 김병철(1976),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을유문화사, 267쪽. 이노우에 번역본은 4·6판 총 410쪽 분량이며, 디포우의 원저 『로빈슨 크루소』를 거의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찬 역술본은 그 절반 가량인 178쪽 분량인데 日譯書를 重譯했으되, 縮譯 혹은 抄譯한 것이다.

21)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1870~1933)는 ‘일본의 방정환’이라고도 불리는 소년문학가이며, 일본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22) 김병철은 『소년』에 수록된 번역물을 ‘원류와 번역태도’라는 제하에서 (원)역자의 번역문과 육당의 번역문을 비교, 기술하는 방식으로 고찰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최남선이 번역한 『로빈슨무인절도표류기』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다.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을유문화사, 1976), 286~300쪽.

23) ‘소년’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최재목(2006)의 논의에 자세하다.

로 활동하였다.²⁴⁾ 또 '오도기바나시(お伽噺)', 곧 '옛날 이야기'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며 『日本昔噺』(1894~1896), 『日本お伽噺』(1896~1898), 『世界お伽噺』(1899~1908)와 같은 총서를 간행, 일본과 세계의 옛이야기들[민담]을 모우고 정리하고 개작했다.²⁵⁾ 또 그는 1913년부터 1930년에 이르는 동안 총 4회에 걸쳐 조선을 방문해서 全鮮巡廻童畫講演會 등의 이름을 걸고 전국을 돌며 동화구연회를 펼쳤다.²⁶⁾

'소년'에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걸고, 구체적인 그 운동의 방향으로 잡지 매체와 자국 고전 부활, 어린이 문학에 한동안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현상적인 유비를 발견할 수 있다.²⁷⁾ 이는 최남선이 '소년'에 주목하고, '소년'을 표제로 한 잡지 매체 활동을 벌였던 것, 그러한 관심의 촉매가 되었거나 혹은 '소년' 기저의 문명/근대화 모형을 제공한 외적인 원형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초가 될 것이다.²⁸⁾ 이 문제를 좀더 주의깊게

24) 최재묵(2006)에 따르면 일본 평민주의의 제창자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1887년 창간한 『국민의 벗』이 촉매가 되어 일본에서 '소년'을 표제로 하는 잡지들이 많이 창간되었고, 일본에 유학 왔던 최남선이 일본의 잡지들을 보고 힌트를 얻어 '소년'에 착목하게 되었다.

25) 이와야 사자나미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주위의 기대를 버리고 1887년 문학결사단인 硯友社の 동인이 되어 연애소설을 쓰는 것으로 문학가의 길을 시작했다. 1891년(명치 24년) 일본 博文館에서 『少年文学叢書』의 제1편으로 그의 아동문학 처녀작이자, 일본 근대아동문학의 획기작이라 할 수 있는 『코가네 마루(こがね丸)』를 출간하고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아동문학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1896년 일본 한 소학교 교장의 권유로, 그의 나이 40세 무렵부터 동화구연을 시작했고 897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 각 지역을 돌며 동화 '구연여행'을 했다. 이상의 내용은 김성연(2006), 『小波 方定煥과 巖谷小波』, 『언어와 문화』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5~224쪽을 참조, 정리한 것이다.

26) 이러한 이와야 사자나미의 활동이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것이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27) 최남선이 일본에 유학해 있으면서 당시 일본 전역에서 일고 있던 '소년' 열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제기되어 있다. 일본의 '소년' 열풍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1887년(명치20) 창간한 『國民之友』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최재묵(2006); 전성곤,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제이앤씨, 2008).

28) 현재 이와야 사자나미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더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최남선과 이와야 사자나미가

살펴 보면 최남선, 나아가 이 시기 지식인들이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를 ‘번역’하며 만들어 낸 논리, 패러다임의 안과 밖을 좀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의 소년 기상과 ‘로빈슨 크루소’

1) 신대한 소년과 ‘로빈슨 크루소’

『소년』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등장은 『海上大韓史』, 그리고 ‘바다’와 함께 이루어졌다. 『海上大韓史』는 최남선이 『소년』 창간호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기획으로, 성장하는 소년에 조선의 미래를 걸겠다는 기획을 가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라는 뚜렷한 기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상대한사』는 1908년 『소년』 창간호부터 연재되었다. 첫 연재의 첫 섹션은 <미리 통고>라는 일종의 서언이다. 그 내용은 ‘이 책 [해상대한사]은 少年의 海事思想을 鼓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포로 시작하여 ‘로빈슨 크루소’의 정신을 배워 세계의 海王이 된 영국의 사례에서 흥기되어야 한다’라는 제안으로 맺어졌다. 이어지는 『해상대한사』 <首編總論>은 앞의 선포와 제안을 이어 “왜 우리는 海上冒險心を 감투어 두었나”하는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다. 이어 최남선은 특유의 반도문화론을 『소년』에서부터 설파하는데 조선이 ‘반도국, 해양국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우월성 때문에 문명의 발상

‘너무도 답았다’는 지적은 박숙경, 「『어린이』와 『빨간 새(赤い鳥)』의 성격 비교」(오사카국제아동문학관(大阪国際児童文学館)의 외국인 객원연구원 연구보고집)에서 지적된 것이 거의 유일한 듯하다. 또 공교롭게도 그가 조선을 첫 방문했던 1913년은 최남선이 어린이를 위한 잡지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 등의 잡지를 잇달아 창간하던 해였다.

지이자 대륙과 해양 문명의 소통처이며 융합처가 된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그런데 조선인 스스로가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의 특성을 망각하거나 심상하게 여기는 것은 왜인가. 왜 해양국인으로서의 확산적 모험심을 갖지 못하는가. 최남선은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한 대륙 중심의 조선의 역사적 경험과, 그로부터 생겨난 陸上的 遺傳性의 국민성, 그리고 바다에 대한 허황된 지식을 갖게 된 문화적 배경이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남선에게 바다는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풍부한 상상력 속에 역동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는 <海의 美觀은 웃더한가> (『소년』 1-2)에서 역동적인 바다의 형상을 서술하며 '環海國少年'이 "한번 장난 삼아, 경력 삼아 밥과 옷하고나 씨름하는 시대에 물결과 싸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했다. '장난 삼아' '경력 삼아'라 흘리듯이 말하였지만 안온하게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린 '옷과 밥만 붙잡고 있는 옷바스씨름꾼들'에게 바다를 향한 모험심과 그로부터 촉발되는 투쟁심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친께서는 성질이 매우 온순하고, 더욱 남들과 같이 자기 자식도 편한 공부를 하고 편한 돈을 얻어 편한 밥을 먹게 하려는 바램이 있는 고로...너는 성미도 悖戾하다. 왜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으로 漂泊하여 고생을 自取하느냐...우리 같은 중등 사회의 사람이야 왜 그런 일을 한단 밀이야. 大抵 중등 사회는 온 사회의 기초일 뿐 아니라, 또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가장 복스럽고 다행한 계급이니.²⁹⁾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을 꿈꾸는 모험 소년에게 크루소의 아버지는 강력한 훈계와 호소로 소년의 출발을 막는다. 그 아버지는 '편안한 밥'으로 상징되는 안정된 삶을 소년에게 물려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훈계와 권고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리하여 안돈할 삶의 권위와 보장을 뜻한다. 최남선은 『해상대한사』의 연재를 시작

29) 『소년』 2-2.

하면서 해양 반도국 사람인 조선 사람에게 ‘해상 모험심이 없는’ 까닭이 선조 때부터 점차 굳어져 온 陸上的 遺傳性³⁰⁾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최남선은 ‘옷과 밥만을 붙잡고 있는 옷밖씨름꾼들’에게 펼쳐 새로운 세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고자 했고, 그것은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의 번역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최남선은 그러한 육상적 유전성은 잘못 고착되어 온 것일뿐, 실제로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과 기호는 장쾌함과 영특함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해상 대한사』에서 강력하게 설파된 바 있는 반도문화론이다. 따라서 조선 소년은 그러한 특성을 심분 발휘, 표류담과 탐색기를 즐겨 읽고 번역하여 해상생활과 항해모험의 흥취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³¹⁾ 바다는 확실히, 모험과 장쾌함,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 ‘소년’이 근대적 진취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다 함의 옷깃을 聯하고 발을 마초아 가서 바다를 보아라 크게 너의들의 狹隘한 所見과 微小한 氣宇를 깨우쳐주리라. 네가 工夫하기를 조와하 나냐 그리하거든 가서 바다를 보아라 學理와 物性이 갓초아 잇지 아니한 것이 없난 自然物은 바다밖게 없으며. 네가 놀기를 조와하나냐 그리

30) 『海上大韓史』(『소년』 1-1). 중국처럼 육지로 연결된 곳에는 취할 만한 文物이 있었고 交易의 이익도 컸지만 해로로 연결된 일본, 유구 등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남긴 상흔이 있어 일본과의 교통을 꺼렸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지금까지 ‘大陸 中 眞大陸에 長長幾萬里 동안을 육로만을 오간 까닭에 생긴 선조의 陸上的 遺傳性이 해상모험심을 가질 틈이 없도록 한 種性(곧 國民性 ‘원주’)이 큰 원인이라 했다. 게다가 『山海經』 등의 서적이 바다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을 조장할 바다의 異物들—여인국, 식인국, 반인반수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1) 『소년』 1-2. “우리는 快壯한 것을 도와하니 그럼으로써 海天을 사랑하며 우리는 英特한것을 도와하니 그럼으로 冒險의 航海를 덜저하며 海天을 도와하고 航海를덜저함으로 漂流談-探索記의 文學을 耽讀하난디라 금에 이性味는 나로하야곰 이不世出의 奇文字 『로빈슨,크루서』를 翻譯하야 우리 사랑하난 少年諸子로 더브러 한가디로 海上生活의 興致와 航海冒險의 趣味를 만보게하도다.”

하거든 가서 바다를 보아라 天下에 偉大한 景, 美麗한 景, 奇妙한 景, 平和의 景, 殺伐의 景, 拙工으로 그리게하야도 名畫를 만드려내일 景, 駿士로 베풀게하야도 雄文을 이루게할 景 등이 가초가초 잇서...優美...艷美...壯美...嚴美...泰西美 ...泰東美...예수敎美...佛敎美 등에 이美저美할것업시 가지지아니한것업시 具備한자연물은 바다뵈게 쏘업나니라...바다에게 可히 偉人 되난 法을 배홀지며...이러한 바다에게 可히 聖人의 道를 배홀지로다...바다는 가장 完備한 形式을 가진 百科事彙(encyclopedia)라. 그 속에는 科學도 있고 理學도 있고 文學도 있고 演戲도 잇을 쏘아니라...바다는 가장 眞實한 材料로 이른 修養秘訣 | 라 自彊不息의 精神, 獨立自存의 氣象, 淸濁併吞의 度量, 深闊한 胸次, 遠大한 經綸, 洪遠한 規模, 勞動力作, 向上精進, 不偏不比, 不驕不傲, 勇敢活潑, 豪壯遊樂等 온갖 德性을 다 가지고 잇을 쏘아니라 事行에 나타내니 바다는 입으로 말하난 者 아니라 일노 말하난 者오 말노 가르치난 者가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난 者라...더욱우리 三面에 바다가돌닌 大韓民國=將次이 바다로써 活動하난 舞臺를 삼으려하난 新大韓少年은 工夫도 바다에 求하지아니하면 아니되고 遊戲도 바다에 求하지아니하면 아니될터인즉... (<嶠南鴻瓜-바다를 보라> 『소년』 2-8)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의 연재가 끝나는 『소년』 2-8은 지면 구성에서도 일관되게 소년들이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 놀고, 배우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에 이어 바다에 관한 자작 한시 <觀海詩>,³¹⁾ 그리고 <바다를 보라>는 제목의 연달아 기사를 싣고, 동양과 서양, 근대의 학문과 전통적 도덕, 모든 백과사전적 지식과 고상한 정신, 장쾌한 유락을 온축한 '모든 것'으로서의 바다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바다'의 정신과, 그곳을 통해 이루어지는 탐험과 모험,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는 원작 디포우 『로빈슨 크루소』가 당대 영국-유럽의 근대 개

31) 이 시는 광활하고 신비한 바다의 物性和 모든 공부의 요체가 되고, 모든 더러움을 안으며, 치우침이 없는 바다를 읊었다.

인의 성장과 그 신화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남선이 크루소가 고립된 무인도에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을 축약해서 번역한 것은 그의 번역이 번역 대본을 상당히 압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엇을 번역하고, 무엇을 번역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다. 크루소가 어떻게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원작과 비교하여 적정한 비율로 번역한 것은 일면 디포우 원작이 담고 있는 근대적 주체의 개인주의의 신화를 최남선이 어느 정도는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텍스트의 번역 방식 자체만을 두고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의 연재에서 실질적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은 무인도 생활과 그 이후이다. 디포우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도 무인도 생활이 1부의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최남선 번역본에서의 비중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다. 이 무인도 생활과 그 이후에 대한 번역에서 그러나 최남선이 원작이 담고 있는 경제적, 종교적 근대 개인주의의 가치관,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타자의 문제 그리고 문명과 야만의 문제가 낳은 폐해에 대한 성찰을 강하게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은 원작의 축약 번역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다른 글이나 주장에서 보여 주지 않는다.³²⁾ 그가 번역 텍스트에 적극 개입하는 번역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강화되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남선이 『로빈슨 크루소』에서 제국주의의 논리와 결합하여 제시되고 있는 서구 근대의 종교적·경제적 개인

32) 최남선은 원작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서방님, 서방님"으로 옮기고 있으며, 그리고 '야만인', '노예 무역', '노예'라는 단어를 기술하고 있다. 이런 번역은 주인과 하인이라는 조선의 계급 제도의 존재로 아무런 문제없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작 2부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나온 타르타르족의 종교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압축된 번역본에 기술한 것은 문명/야만의 서구적 이분법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그의 조선 문명화를 위한 당대 미신 타파에 대한 주장과 결부되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발견했을 여지는 충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이 맞닥뜨렸던 '외부'는 국권을 위협하며 다가오는 일본 - '제국'과, 제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선문명화의 지표와 목표로서 절실했던 문명이라는 이름의 '서양', 이 두 가지였다. 이 때 '제국'과 '서양'은 별도의 것이 아니다. 다른 이름을 하고 있으나 확산과 지배의 속성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실체였다 할 것이다. 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의 관계, 타르타르족의 미신숭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명/야만을 가르는 서구 근대의 이분법으로 식민을 합리화하려는 제국의 속성을 스스로 읽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최남선은 조선의 문명, 근대화라는 기획 속에서 원작 『로빈슨 크루소』가 담고 있는 관점들을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지 않고 있다.³³⁾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최남선의 전제는 조선의 신문명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서구 문명과 가치관의 수용과 적용이 절박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로빈슨 크루소'라는 기표는 원작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제국과 식민의 논리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조선이 문명화된 국가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달성하기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작동하였다. 그 안에 담긴 선구는 가치와 이를 조선에 내면화하기 위한 지식체제들이 가장 우선했던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허구성과 진실성, 양가성은 잠정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거나 예리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대신 최남선은 잡지 『소년』과 『청춘』을 통해서 일관되게 새로운 문명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고, 이를 통한 소년의 지적, 정신적, 육체적 수양을 강조했다. 그 수양은 굳건한 정신과 노동하는 육체, 그리고 그것이 갖는 생산성의 문제를 아우르며 조선문명화

33)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출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로빈슨 크루소'를 "진정한 영국인 정복자의 상징" 또는 "영국인 식민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비판적으로 읽었다. Michael Shinagel, *Robinson Crusoe: Daniel Defoe, 323~356*. 영국의 식민지 출신의 조이스와, 영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에 직접 닿아 있지 않았고, 영국-유럽을 신문명의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인 최남선의 시야 차디오 있었을 것이다.

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다.³⁴⁾ 이런 점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디포우 원작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소년은 소년은 “國益과 人文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수양(완성)되어야 했다. 그것이 최남선이 조선의 문명/근대화를 위해 잡은 방향타였다.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는 산업자본주의화의 길을 넘어 온 제국 영국의 작가가 만들어낸 위대한 근대 개인 성장의 신화였다면 최남선의 ‘로빈슨 크루소’는 민족의 미래를 구원할 ‘문명화된’ ‘인간’이 되기 위해 조선 소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동성과 진취적인 힘의 기표로서, 하나의 구호로서 외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능동성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기운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출발은 곧 그가 현재에/육지에 머무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안정되게 유지된 상태로부터의 분리를 뜻하기도 한다. 크루소의 아버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고 이것은 단지 ‘현재’적인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큰 외연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크루소의 아버지가 말했던 바 육지의 ‘안정’은 최남선이 ‘선조 대대로의 육상적 유전성’과 연동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최남선이 말하고자 하는 진취성과 기상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리는 횡적/공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피를 통해 전해져 온 유전적인’ 것들과 결별하는 종적/시간적 문제이기도 하다.³⁵⁾

2) 신대한 소년과 ‘大洋’

디포우 원작 『로빈슨 크루소』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근대 개인

34) 『소년』 2-10, 『刪修擊蒙要訣』 광고, “文明이란何오 電燈만도 아니오 鐵道만도 아니오 化學의 應用만도 아니오 物性の 究明만도 아니라 個人에 在하야든지 國家에 在하야든지 社會上에 在하야든던지 德·體·智 三件事가 平均하게 발달됨을 謂하니라”

35) 이 지점에서는 최남선이 ‘舊習의 개혁’을 강조하고, 본받을 만한 ‘선배가 우리에게 없는’고 하며 과거와의 분리를 강조했던 논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들은 안과 밖, 서양과 조선으로 각각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주의적 가치관은 17세기 이후 서양 근대의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가치관이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가는 전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영국 사회에서 상업과 무역으로 경제 활동을 주도하며 부상한 중산계층의 가치는 널리 확대되었다. 이 가치, 즉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아 개인주의는 당대 영국인에게 부의 축적과 신분상승이라는 욕망을 작동시키는 이데올로기였다. 크루소가 안정된 중산 계층의 삶을 권유하는 아버지의 조언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은 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협소한 국내 자본에 만족하기보다 해외로의 확장을 꿈꾸는 영국의 팽창적 제국주의 정책과 겹쳐진’다. 그리고 이는 제국의 식민지 개척과 연동하여 부를 축적하고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었다. 그래서 크루소가 바다로 나간 것은 서구 근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적 욕망의 발현이며, 이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크루소는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화 과정을 담아내는 전형적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크루소는 무인도 생활을 전후로 한 시기에 아프리카나 브라질 등지에서 수완을 발휘해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노예무역을 해서 자본을 축적했다. 이 부분의 번역에서 최남선은 독자의 이해를 서양 화폐의 단위를 ‘利’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주는 정도 외에는, 아프리카와 인도 등의 식민지, 노예무역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자본을 만드는 논리, 가질수록 더해가는 돈에 대한 인간의 헛된 욕망을 별 가감 없이 옮겨 놓았다.

이번 길은 매우 結果가 조아서 利를 만히 남겨 가지고 런던으로 도려 갔소이다.³⁶⁾

36) 『소년』 2-3. 디포우 원작에서는 “이번 여행은 나를 선원이자 상인이 되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5 파운드 9 온스의 사금(砂金)을 챙겨 돌아왔고, 런던에서 그걸 판 대가로 거의 300파운드라는 이익을 낳았기 때문이다”(RC 16)로 기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본 글에서 RC로 약기한 것은 마이클 쉬네겔(Michael Shinagel)이 편집한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우』(*Robinson Crusoe: Daniel Defoe*)에 포함된 소설 본문을 지칭하기

그 뒤에 나는 뿌렛실에서 砂糖을 栽培하여 不數年에 相當하게 財産을 일우었소이다. 대개 사람이란 것은 財物이 모히고 일이 만하지면 만 하지난대로 그대로 여러가지 慾心이 생기난法이라, 나도 亦是 虛慾에 썩워서 여러가지 狼貝를 보았소이다.³⁷⁾

크루소는 무인도에 표류하기 전 브라질³⁸⁾의 토도스로스 산토스 만(Bay de Todos los Santos)에 정착했다. 그곳 정착인에게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설탕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노예를 두고서 농장을 경영하고 부를 축적했다. 농장의 안정과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를 더 확보하려는 계획도 세운다. 노예 노동력 나아가 피식민인의 노동력을 통해 서양이 물질적 풍요와 막대한 자본의 축적을 이루었다는 것, 인간을 도구로, 수단으로 간주하는 서양 근대의 이면이 노출되는 부분들이다. 비록 간략하게 기술되었으나, 최남선도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앞에서도 누차 지적했지만, 상당히 축약된 번역 속에서 ‘선택된’ 문장들이다.

여러사람이 와서 썩야나에 가서 貿易도 하고십고 썩 奴隸도 사오고십흐니 자네가 그 監督을 하지아니하라나 하난지라 이세 나도 썩한 속에 당괴매 곳 許諾하고...³⁹⁾

어떤 점에서는 크루소가 그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본을 축적한 것은 그가 ‘거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바다를 건넜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은 최남선에게서 분명하게 보인다. 『해상대한사』와 이어

위한 것이다. 원작 소설 1부 내용을 인용할 때 RC와 해당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37) 『소년』 2-4. 디포우 원작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제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내 머릿속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온갖 계획과 사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업계에서 잘나가던 사람이 종종 파멸하곤 한다”(RC 32).

38) 『소년』 2-4. 최남선의 번역본에는 ‘뿌렛실’로 표기되어 있고 『최남선전집』(1977, 195쪽)에는 ‘브뤼셀’로 표기되어 있다. 이 표기는 ‘브라질’을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39) 『소년』 2-4.

지는 지면의 <海의 美觀은 웃더한가>('소년' 1-2)에서 최남선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달아 놓았다.

- ① 大洋을 指揮하난者는 貿易을 指揮하고 世界의 貿易을 指揮하난者는 世界의 財貨를 指揮하하니 世界의 財貨를 指揮함은 곳 世界總體를 指揮함이오. (랄니)
- ② 내가 今日까지 目睹한 모든物體中에 海洋갓히 나의 想像力을 衝起한者 | 업소. 나는 巨浪이 漲起할새나 細波도 不起할새나 다 心神이 爽快하고 아을너 嗟歎하난情을 禁티못하오. 또 暴風雨를 만나 一望無際한海上에 鯨波鯨浪이 서로티고 서로미난새에는 마음에 무섭고도 요흥이 筆舌노 다하수업소. (아디손)
- ③ 「로빈슨 크루소」는 海事에 關한 한 小傳奇라 그러나 世界의 海王이라는 英國의 海軍은 此로 因하여 成就하였다하나니 吾人은 此에 觀感하여 興起티아니티못하리로다. (執筆人)('소년' 1-1. 「바다란것은 이러한것이오」)

최남선이 인용해 둔 ① 랄니의 말은 세계의 총체는 財貨라는 논리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재화는 교역을 따라 유통되며, 교역의 길은 바로 '대양'—바다에 있다. 곧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교역을 지배하는 것이고, 교역을 지배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랄니의 말에는 교역과 그를 통한 이익의 창출을 이루게 하는 통로이자 資源으로서의 바다,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곧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논리가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로빈슨 크루소』의 원저자 디포우가 “어느 나라든지 교역을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⁴⁰⁾라고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디포

40) 김정희, 「다니엘 디포우」, 『18세기 영국소설 강의』, 160쪽 재인용. 참고한 인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포우는 “『완벽한 영국 상인』(*The Complete English Trades Man*)에서는 해외교역을 통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리라는 비전을 담고 있고, 『영국 상업에 대한 계획』(*Plan of English Commerce*)에서는 “교역이 부의 토대이고, 부는 권력의 토대”라는 그의 기본 가설을 펼치고 있으며 『평화와 상업이 주는 잇점』(*The Advantage of Peace and Commerce*)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교역을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와 최남선이 동일하게 보여 주는 이러한 인식은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일치점은 아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산 계층과 중인 집안 출신이라는 두 사람의 유사한 계급적 특성도 이러한 현실적인 사고 방식의 유사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최남선의 좌우명 중 인상적인 것은 “哲學的의 理想을 商賈的으로 實行하라”⁴¹⁾는 말이다. 고매한 이상을 위해서 장사치의營利 정신은 폄하될 법하다. 그러나 최남선은 철학적 이상을 商賈의 정신과 가치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모토로 세웠다. 사실 그가 신문관에서 ‘십전총서’ ‘육전총서’를 발간한 것은 동양과 서양의 저작물들을 대중적으로 보급하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조선 신문명의 터를 닦는다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그 理想은 분명히 ‘십전’이니 ‘육전’이니 하는 ‘돈’, 곧 자본이 책과 출판, 그리고 근대/문명화 운동과 결합된 형태로 모색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⁴²⁾

財物에는 三難이 有하니, 聚하기 難함이 一이요, 守하기 難함이 一이요, 또 用하기 難함이 一이라. 欲하는 자 千萬人에 得하는 자 一人이요 得하는 자 千萬人에 守하는 자 一人이요 守하는 자 千萬人에 用하는 자 一人이로다. 然이나 此 이상에 다시 最大難이 有하니 善用이 是라. 用하는 자 千萬人에 善用하는 자 一人이라 할지니라... 意志를 단련함에는 道德도 貴하며, 才智를 濬明함에는 學問도 貴하니, 理想을 現實하는 데 필요물인 金錢인들 어찌 또한 貴하다 하지 아니하랴. 다만 金錢의 貴함은 金錢이기 때문에 貴한 것이 아니라, 金錢의 발휘하는 효능히 大하기 때문에 貴한 것이니, 저축으로써 최종 목적을 作할

41) 최남선(1916), 『時文讀本』, 「六堂自警」(『육당최남선전집』 8, 현암사, 1973), 589쪽.

42) 이는 출판물의 홍보 전략에서도 비교적 치밀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신문관에서 『소년』, 『청춘』에 수록되었던 글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출간했으며, 또 『소년』과 『청춘』에는 신문관 발행 (예정) 단행본들에 대한 광고가 계속 실렸다. “주도면밀한 계몽 기획에 따라 『신문관』을 중심으로 출판 시장이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식의 광고는 1910년대 잡지 광고물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최남선 특유의 출판, 문화, 경영의 기획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소영현(2006),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고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199~200쪽.

진대, 비록 黃牌紫標가 疊屋連里하기로 何貴가 有하리요. 金錢을 愛함은 아무 鄙陋한 것이 아니로되, 愛함으로 인하여 본의를 失하게 되면 闕人은 과연 鄙夫요 闕有는 과연 醜物이니...財物을 聚積함도 快事 아님 아니요, (재물을) 守成함도 樂事 아님 아니로되, 能用 善用의 大快 大樂에 比語할 수 없는 것이어늘...⁴³⁾

위에서 인용한 <財物의 三難>⁴⁴⁾은 『청춘』과 『시문독본』에 모두 수록된 것으로 표현 자체는 ‘재물’이라는 전통적 표현을 따르고 있지만, “비일상적인 모험을 강조하면서도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성격을 잘 드러낸 글”⁴⁵⁾이다. 사실 앞부분에서 인간이 훌륭한 의지와 총명함을 기르는데 도덕과 학문이 귀하다고 한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금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전은 귀한 것’이라는 말과 논리이다. 최남선 그 자신이, 비록 ‘근대 자본’의 이념과 논리를 표명화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재화의 교역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과 가치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와 연동된다는 것을 터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가 유럽 근대 자본주의의 맥락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 연재의 완결 편(『소년』 2-8) 말미에는 크루소가 자신의 삶의 이력을 마무리하며 신대한 소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실려 있다. 물론, 원작에는 없는 최남선의 개입이다.

내가 그동안 지낸 일은 이뿐 아니나, 너무 張皇하면 도리어 厭症이 생기실 듯하여 대강대강 따서 여쭙으니, 자세하게 알려 하시면 内外國 文字間 에 내 事蹟이 기록되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그것을 보시오. 그러

43) 최남선(1916), <財物의 三難>, 『時文讀本』, 『육당최남선전집』 8, 현암사, 1973, 571~572쪽.

44) <정재(곡예)비행>은 『청춘』 11(1917. 11)에 수록된 <勇氣論>의 일부, <재물의 삼난>은 『청춘』 8(1917. 6)의 일부이다. 임상석(2009), 『시문독본』의 편찬 과정과 1910년대 최남선의 출판 활동』(『상허학보』 25, 상허학회, 47~78)에서 정리한 내용을 재인용했다.

45) 임상석(2009), 59쪽.

나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가장 광명스럽고 영에 있을 前途를 가진 新大韓 少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형편이 三面으로 滋味의 주머니로 보배의 庫人집인 바다에 돌닌것을 尋常한 일로 알지 말어 항상 그를 벗하고 그를 스승하고 또 거기를 놀이터로 알고 거기를 일터로 알아, 그를 부리고 그의 脾胃를 맞추기에 마음 두시기를 바라옵나니, 여쭙지 아니한 말씀이나 깊이 들어 주시오. 그런데 한마디 붙여 말할 것은, 우리모양으로 私利와 작난으로 바다를 쓰실 생각말고 좀크게 넓게 人文을 위하여 國益을 위하여 眞實한 마음과 精誠스러운 뜻으로 學理研究·富源開發등 조흔 消遣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남선이 ‘크루소’의 입을 빌려 말하는 바다는 소년이 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의 부의 근원을 개발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은 人文과 國益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했다. 서양에서의 그것이 ‘私利’인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선 소년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상상력과 모험심이라는 근대적 인간의 요소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지점이다. 조선 소년에게 ‘바다’는 좀더 크고, 넓게 ‘국익과 인문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최남선 스스로 서양의 그것과 신대한의 ‘로빈슨 크루소’를 구별짓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디포우 원작에서 크루소가 항해를 떠나는 이유는 “사악한 힘, 큰 재산을 모아보겠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⁴⁶⁾에서였다. 그래서 몇몇 서양 연구자들은 모험을 떠나려는 크루소의 방랑벽을 더 큰 이익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크루소에게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인도 등의 식민지 자원을 통해 신분 상승과 부의 축적을 이루어 입신출세하려는 근대 영국인들의 태도와 관점을 찾아낸다. 이런 점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경향 그 자체”⁴⁷⁾로 읽히기도 한다. 나아가 현대의 탈식민주의 비평에서는 『로빈슨 크루소』를 서양 “제국주의적인 태도와

46) RC 15.

47)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72.

언급과 경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문화적 양식”⁴⁸⁾인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런 평가 속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끝없는 자본의 확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제국의 해외 팽창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소설이 되고 “머나먼 비유럽 지역에 자신을 위한 영지를 건설하는 어느 유럽인에 대한 이야기”⁴⁹⁾가 된다.

반면, 최남선의 번역본에서 그러한 “사악한 힘”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자본의 확장이라는 “사악한 힘”에 의해 팽창하는 서양 근대, 서양 제국은 부각되지 않는다. 신대한의 ‘로빈슨 크루소’는 ‘평생 바다에 배 한척 띄우고 고래와 악어를 벗 삼아 떠도는 것을 상쾌하게 여기며’, 늘 ‘외국으로 가고 싶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이기지 못했던, 모험심과 용기를 지닌 인물로 번역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디포우 원작과 비교해 볼 때 최남선 번역본은 모험을 떠나기까지 이전의 이력을 번역하는 데 할당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요컨대 ‘모험 소년’ 로빈슨 크루소가 ‘편안히 밥 먹고 살 수 있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등사회의 안온함’을 벗어나 결심과 실천,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며 새로운 세계, 바다로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상대적인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남선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기표를 통해 독자 소년들에게 일깨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맺는말

디포우 원작의 제목은 *Robinson Crusoe*이며, 최남선이 번역대본

48)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22-23쪽.

49)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23쪽.

으로 삼은 일본어 번역판의 제목은 『無人島大王ロビンソン漂流記』(巖谷小波, 1899), 그리고 최남선 번역본의 제목은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1909)이다. 디포우의 원작은 크루소라는 한 인간/개인이 강조되고, 이에 비해 일본어판의 제목은 ‘무인도’와 ‘대왕’이라는 말이 앞에 배치되면서 무인도를 지배한 지배자—왕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풍긴다. 최남선 번역본은 무인절도로의 표류와 모험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 이런 제목이 주는 이미지의 차이는 각 텍스트 혹은 그 저/역자가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크루소가 장쾌한 모험의 공간으로서 바다를 통로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이야기는 동서양 어디에서도 매우 흡인력이 강했다. 근대 중국의 번역가인 林紓는 이 책의 번역본 서문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中人之中이나 庸人之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거친 파도와 싸우고, 절도에 살면서, ‘獨行獨坐하고 복희, 현원, 수인, 신농씨가 하던 일을 했던 것’이라 했다. 크루소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할 곤경과 대자연의 위협 앞에서 강한 모험과 세계 창조의 정신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이로부터 근대 중국인들은 “中庸의 생활을 싫어하고 자신의 두 손을 써서 신천지를 개척하려는 정열에 의지하여 자기의 물질적·정신적 왕국을 창조하며 독립적 개성을 성취하고자 했다. …이것은 스스로 분기하여 자연·사회와 투쟁하라는 일종의 정신적 격려”였다.⁵⁰⁾ 근대 중국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나의 손’으로 나의 세계를 쟁취하며 창조하는, 좀더 투쟁적이며 독립적 존재의 기표로서 번역되었다.

18, 19세기 서양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인기는 높았다. 유럽의 저명인사들도 청소년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했는데 그들은 『로

50) 이상 중국에서의 ‘로빈슨 크루소’가 어떻게 읽혀졌는가 하는 문제는 邹振环, 「近代中國人在魯濱孫身上寻找什么」, 『影响中国近代社会的一百种译作』(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 참조.

빈슨 크루소』를 모험이라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당대의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전달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소개했다. 19세기의 유명한 수필가인 윌리엄 해즐릿(William Hazlit)은 『로빈슨 크루소』를 성정 다음으로 영국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으로 평가했다.⁵¹⁾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또한 자신의 저서 『에밀』(*Émile ou de l'éducation*)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을 인간적 완성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서가에 두고 싶은 유일한 책이라고 극찬했던 것이다.⁵²⁾ 물론 이러한 평가는 『로빈슨 크루소』에서 “청교도적 섭리를 통해 표현된 서구 자본주의의 원형적 신화”를⁵³⁾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웠던 제국 안 서양 근대인의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이 작품을 “진정한 영국인 정복자의 상징” 또는 “영국인 식민주의자의 전형”⁵⁴⁾이라고 읽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출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비판은 아마도 제국 안의 서구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 초 최남선에게 ‘로빈슨 크루소’는 모험과 탐험을 통해 인간적 완성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서 번역되었다. 거기에 최남선은 ‘조선’이라는 공간이 처한 특수성, 곧 반도국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바다를 향한 모험심과 진취적인 기상이야말로 새롭게 구성해야 할 조선 ‘소년’의 像임을 역설했다. 이는 앞에서 서술했듯 18, 19세기 서양의 지식인들이 이 ‘즐거운 모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을 완성된 개인으로 키워갈 수 있음에 열광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소년의 성장’은 그 개인의 온전한 성숙에서 그쳐지는 차원의 것일 수 없었다. 그것은 최남선의 입을 통해 거듭 확인되지만 국익과 인문(문화)에 바쳐져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51) Michael Shinagel, *Robinson Crusoe: Daniel Defoe*, 292.

52) 장 자크 루소, 『에밀』, 329-330쪽.

53) 여건종, 「대니엘 디포우」, 『영미문학의 길잡이 1』, 201쪽.

54) Michael Shinagel, *Robinson Crusoe: Daniel Defoe*, 323~356.

최남선은 소년이 조선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 생각하고, 소년이 '문명화된 개체'로서의 안팎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당대 조선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남선의 '신대한 소년 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이 '해양'과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적절하게 제기된 바 있다.⁵⁵⁾ 그리고 그것은 최남선에게 문명화의 내용과 방식을 가름하는 중요한 방향타는 서양이었다. 최남선이 잡지와 단행본을 통해 무수하게 소개하고 번역했던 서양의 텍스트들은 그 반증이다. 최남선이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 주었던 '소년'과 '바다'는 최남선이 당대에 수행한 '서양'에 대한 경험과 구체적 번역, 곧 '로빈슨 크루소'라는 서양의 근대/개인/자본의 기표를 가져 와 이를 조선의 맥락으로 삽입, 변화키시면서 신대한 소년의 안과 밖을 구성해 갔던 것이다.

[투 고 일 : 2009년 7월 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7월 25일]

55) 최재목(2006).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1974. 『六堂崔南善全集』 1-8, 현암사.
- 구인모, 최남선과 국민문학론의 위상. 2005.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 권두연a. 2008. 「신문관(新文館) 단행본 번역소설 연구」, 『사이』 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권두연b. 2008. 「『소년』, 문체실험의 장」,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 권두연c. 2007. 「근대 초기 번역 소설에 관한 한 연구 - 『썰리버유람기』의 “순국문”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사이』 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권두연d. 2007. 「근대 초기 번역 소설에 관한 한 연구 - 『썰리버유람기』의 “순국문”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권보드래. 2005.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 근대문학 연구』 6-2.
- 김경일. 1997.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주의」, 『현대사상』 2.
- 김기봉. 2008. 「한국 고대사의 계보학」,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 김성연. 2006. 「小波 方定煥과 巖谷小波」, 『언어와 문화』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정희. 1999. 「다니엘 디포우」, 『18세기 영국소설 강의』, 신아사.
- 류시현. 2005.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류시현. 2007.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 역사문제연구소
- 박진영. 2007. 「소설 번안의 다중성과 역사성: 『레미제라블』을 위한 다섯 개의 열쇠」,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이산.
- 소영현. 2005. 「청년과 근대-『少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 한국근대문학회.
- 소영현. 2006. 「근대 인쇄 매체와 수양론·고양론·입신출세주의」, 『상허학보』 18집
- 안용희. 2008. 「모험의 가능성과 제국의 균열—『소년』 번역 텍스트와 역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3집, 국제어문화회.

- 여건중. 2003. 「대니엘 디포우」, 『영미문학의 길잡이 1』, 창작과 비평사.
-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 옮김. 1995.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 이언 와트, 이시연·강유나 옮김. 2004. 『근대 개인주의 신화』, 문학동네.
- 임상석. 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 장 자크 루소, 김종현 옮김. 2003. 『에밀』, 한길사.
- 전성곤. 2008.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 조운정. 2007. 잡지 『少年』과 국민문화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1, 한국현대문학회.
- 최기숙, 「“옛 것”의 근대적 소환과 “옛 글”의 근대적 재배치: 『소년』과 『청춘』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 연구소, 2007
- 최재목. 2006. 『少年』誌의 '新大韓의 소년' 기획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18, 동아시아일본학회.
- 한기형. 2004.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Shinagel, Michael. ed. 1975. *Robins Crusoe*. Daniel Defoe. New York: Norton.
- Watt, Ian. 1981.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New York: Penguin.

Choi Nam-Seon's Plan of New Dae-Han and 'Robinson Crusoe'

KIM Nam-Yee, HA Sang-Bok

HK Assistant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Making the plan of New Dae-Han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youth as the hope for Joseon, Choi Nam-Seon pursued various ways for the civilization of Joseon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ich, at the time, was colonized by Japan. His gathering, introducing, translating, and publishing of Eastern and Western classics were started from this plan. He translated many Eastern and Western texts both partially and in an abridged version, and then published them serially in his magazines, *So-Nyeon*(Young People) and *Cheong-Chun*(the Bloom of Youth).

Among the translated versions of Western texts, a remarkable example was that of Daniel Defoe's *Robinson Crusoe* in *So-Nyeon*. In the two texts, Choi's translated version and the original text, we can read the particular contexts reflected by both translator in Joseon and author in England or comparatively read the intersecting places and transformative positions between Joseon and the West. This paper accurately examines these readings through investigating Choi's thoughts related to the civilization of Joseon.

Key Words : Choi Nam-Seon, The plan of New Dae-Han, Daniel Defoe, *Robinson Crusoe*, *So-Nyeon*, The civilization of Joseon.